팔정도 실천해 연기 이르면 '부처'



김성규의
緣起 이야기

⑬ 진리의 실천 '팔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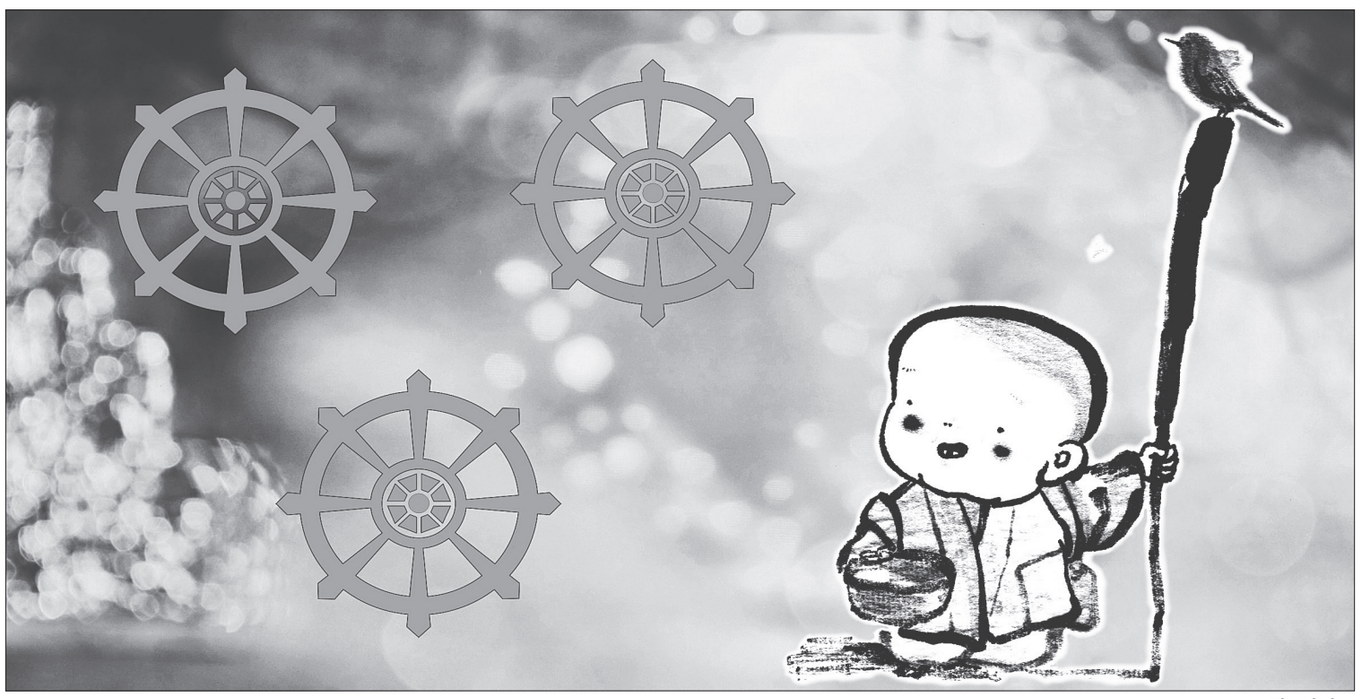


그림 · 강병호

카필라상의 왕자였던 싯다르타는 어린 시절에 4대 성문에서 늙은이 · 병자 · 죽은 자의 상여 · 출가 수행자를 보고 삶의 허망함과 고통을 인식하고 이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찾았다.

싯다르타는 '8살 때부터 왜 죽어야만 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졌고, 29세에 출가의 길을 나서게 된다. 6년 동안의 수행을 통해 죽음에 대한 해답인 '연기'를 얻었다. 이를 두고 나중에 회상하기를 "나 전에도 이후에도 나만큼 고행하는 자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연기에 이르는 방법론이 사성제이며, 실천덕목이 팔정도인 것이다.

정견(正見)

정견은 무아와 무상을 인식하고 난 후에 생기는 견해이다. "무아와 무상을 인식하여 사성제와 연기법의 도리를 바로 이해하며 선악을 구별하고 인연 따라 나타나는 법을 보는 것이고, 정법을 지키는 것이며 정견을 가지는 것이다. 진리와 진실을 바탕으로 한 보편타당하고 편견이 없이 있는 그대로 바로 보는 것이다."

정사(正思)

생각인 정사부터 나와야 하는데 정견이 먼저 나왔다. 정견이 되고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래서 정견이 되기 위해서 바르게 생각해야 한. 정사는 바르게 생각하라는 것이다.

"번뇌, 망상과 삼독심에서 벗어나 주관이나 편견에 치우지지 않고 진심과 원한 없는 바른 생각, 바른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정사가 된다. 정사가 되면 삶 자체가 바르게 연결 될 수가 있다.

무명의 속성은 불안과 두려움이다. 무명의 속성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탐진치다. 탐진치를 크게 나누면 탐은 식욕, 형상이 있는 것에 대한 욕망이고 진은 색욕으로 감정적인 욕망, 치는 수면욕, 치에서 무명의 상태가 일어난다. 치심에서 탐심과 진심이 나온다. 명의 속성은 밝음과 편안함이다. 밝음과 편안함에서 바른말이 나오고 바른 행동이 나온다. 바르게 생각을 하는 바탕에서 바른 행동이 이루어진다.

정어(正語)

바르게 말하면 정어가 되며 바르게 행위를 하면 정업이 이루어진다. 바른 생각만 되면 정어와 정업이 이루어진다. 정어란 무엇인지 한 번 생각해보자.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보고 바른 생각, 바른 마음을 갖게 하는 바른말,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욕하는 말을 하지 않으며 서로 다른 말 이간질 하는 말을 하지 않으며 허황된 말을 하지 않는다."

〈법구경〉에 따르면 '바른말 한마디가 참된 공양'이라고 한다. 부처님에게 올리는 가장 좋은 공양은 바른 말 한마디다. 바른말 한 마디는 정사가 되지 않으면 정어도 되지 않는다. 정사가 되면 정어가 되고 정어가 되면 바른 행위가 나온다.

정업(正業)

바른 생각, 바른 마음으로 하는 행동이 정업이다.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은 바른 행동을 하게하고, 바른 행동을 계속하면 바른 습관이 생기게 되며, 바른 습관은 바른 생활을 하게하고, 바른 생활은 바른 인생을 살게 한다. 바른 생활은 현생에서도 내생에서도 복을 받게 한다.

학생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것은 정업을 하라는 것이다. 이때 공부하는 습관이 잘 들어놓으면 평생 복인 것이다.

정명(正命)

행위가 지속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바른 행위의 연속이 삶인 것이다. 그래서 정업이 되면 정명인 바른 삶이 된다. 바른 생각인 정사부터 정어가 되고 정업이 되고 정명이 된다. 정명의 뜻을 보면 "십 악업을 멀리하며 또한 남에게 이익이 되는 바른 일로 직업을 삼아 바른생활을 영위" 하는 것이다.

바른 삶이 정명이다. 우리의 삶은 평생 바르게 살아도 본전치기 밖에 되지 않는다. 이생에 힘들게 받은 사람 몸을 본전치기보다는 나은 삶을 살아야겠지. 바르게 살아가는 것까지는 기본적으로 본전치기 삶이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정정진을 해야 되는 것이다.

정정진(正精進)

이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진하는 것이다. 어떻게 정진할 것인가? 정진하지 않는 삶을 평생 살아간다면 한치 앞을 더 나아 갈 없다. 그래서 이생에서 정진 한번은 해보고 죽어야 한다. 그 정진을 바탕으로 다음 생은 더 나은 삶을

> **"한 단계 나은 삶을 위해 우린 부처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정진을 실천 정정진, 정념 · 정정으로 구성 정념 · 정정 이뤄진 것이 정견"**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세세생생 살아온 습에 의해서 사성제로 하루에 한 문제씩 푸는 것도 쉽게 되지 않는다.

정진이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정진은 어떤 문제를 놓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같은 행위를 되풀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한 시간 씩 공부하는 습관을 들일 것을 제안한다. 이 한 시간이 바로 정진인 것이다. 예를 들어 '하루 1시간 참선을 하겠다' '하루에 절을 500배 하겠다' 고 정했다. 그런데 시간을 정하지 않고 멋대로 바꾸어가면서 하는 것은 정진이 될 수 없다. 시간을 정해 놓지 않고 내 멋대로 하는 것은 정진이 아니다. 가장 간단하고 쉬운 것이지만 평생을 살아도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정진이다.

부처님의 법은 인연법이다. 길 가다가 옷깃 한 번 스쳐도 500생의 인연이라고 했다.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인연이다. 공부하는 인연으로 다 견성성불 할 수 있는 것이다. 견성성불은 공부하는 인연만 지어 놓으면 그 인연이 조건을 성숙하게 하며 그에 따른 정진하는 인연까지 성숙하는 것이다.

어느 생에서 한 번 정진하는 맛을 들여놓으면 그 힘에 의해서 세세생생 살아가면서 정진도 하고 견성성불도 하게 된다. 이렇게 정진해 놓으면 다음 생에 쉽게 정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다. 지금 이생을 살아가는 모습은 99.9%가 전생에 했던 행위 그대로이다. 우리를 바꾸는 원동력은 정진에 의해서 0.1%만 변해도 되는 것이다.

일 년이 힘들면 20일도 좋고, 100일도 좋다. 백 일만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업을 바꿀 수 있다. 우리의 업을 바꾸는 계기가 100일인 것이다. 백 일만 참선 할 수 있으면 평생을 할 수 있다. 세세생생 할 수 있는 것이다. 부처되지 말라고 해도 부처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백 일 공부하기가 정말 어렵다. 처음 공부할 때 매일 30분이라도 한번 해보라고 한 것도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제대로 한번 해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30분씩 참선을 하든 108배 절을 하든 30분을 100일 만 해보자. 그 다음에는 하지마라 해도 돈 내고 할 것이다. 공부하는 것이 내 습을 바꾸는데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이다. 100일만 잘 버티면 습을 바꿀 수 있다. 습을 바꾸는 것은 목숨 걸고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어렵다. 기도를 하는 도중에는 끊임없이 일이 생길 것이다. 100일을 성취하려면 목숨 걸고 해야 한다. 백 일을 못 채우고 70일을 했다면 그것만 해도 큰일을 한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끊임없이 정진하겠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 정진력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변화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진함으로써 이미 생긴 악을 제거하며/ 수억 겁 동안 살아오면서 생긴 나쁜 마음 탐진치를 제거하며/ 아직 생기지 않은 악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내가 정진을 하여 내속의 악한 세포가 자라날 수 없으며/ 탐진치가 생겨날 수가 없고, 이미 일어난 선한 생각은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며/ 나한테 선한 업들이 정진을 하니까 점점 커지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선한 생각은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셨다.

정념(正念, 위빠사나)

불교공부하면 두 가지 큰 길을 만나게 된다. 사마타와 위빠사나이다. 한국 불교는 대승불교, 선불교 중심이다. 그래서 선정에 드는 사마타 중심의 불교이다. 남방에서 들어온 위빠사나 불교는 한 때 상당히 유행했다. 누구는 위빠사나가 더 맞다고 하고 누구는 사마타가 더 맞다고 한다. 사마타와 위빠사나는 부처님이 가르치신 두 가지의 정진하는 방법일 뿐이다. 정념하는 것은 위빠사나이고 정정하는 것은 사마타이다. 사마타의 지(止)는 천태지의선사가 쓴 지관의 지이다.

위빠사나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지관에서 관조하는 것, 관찰하는 것이 관(觀)이다. 마음속에 바른 지혜를 일으켜서 일체 대상의 실상을 그대로 관하는 것이 관이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자세히 관찰하여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한 생각을 집중시켜서 아예 산란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지이다. 그래서 지가 더 중요한 것도 아니고 관이 더 중요한 것도 아니다. 지와 관 두 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깨달음에 이를 수가 없다. 여기서 사성제를 지관을 통해서 말할 때는 관인 것이다. 어떤 일이 왜 일어났느냐 하는 그 원인을 찾아가는 것이 관인 것이다.

예를 들어 친구와 부딪치면서 성내는 마음이 일어난다. 왜 성내는 마음이 일어나는지 원인을 찾고 관찰하는 것은 위빠사나의 관이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사성제를 제대로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위빠사나다.

결국 불교는 위빠사나와 사마타의 두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두 기둥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된다. 정념은 위빠사나의 관이고 정정은 사마타의 지이다. 부처님께서는 두 가지를 다 할 때 깨달음에 이른다고 하셨다.

정정(正定, 사마타)

마음을 굳게 가지고서 일체의 대상이나 내부의 산란한 마음에 동하지 않고 특정한 대상에 집중시키는 것이 사마타의 지이다. 스님들이 참선할 때 '이뭣고' 하며 모든 생각을 여기에 집중시키는 것이 바로 사마타다.

처마 밑의 돌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방울에 구멍이 뚫린다. 이와 같이 한 생각에 모든 것을 지속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사마타이다.

팔정도에서 정사는 바르게 생각하면서 바르게 말을 하고 바른 행위를 하는 이것이 바른 삶이 되어 본전치기라고 했다. 여기서 한 단계 나은 삶을 위해서는 부처가 되어야 한다.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정정진을 해야 한다. 정정진의 내용에서 하나는 정념이고 하나는 정정이다. 정념과 정정이 100% 이루어진 것이 정견이다. 부처님께서 왜 정견을 제일 덕목으로 내놓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연기로부터 나오는 인식, 생각이 정견이다. 팔정도의 일곱 개 덕목을 다 터득하고 난 후에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 바른 견해 정견인 것이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팔정도를 실천함으로써 부처가 된다고 가르친 것이다. 〈영남대 의대 교수〉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